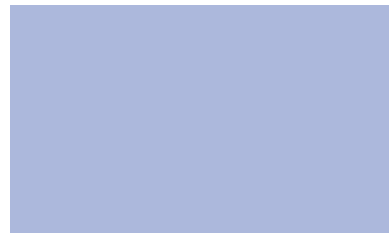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연속보도, 그리고 내 후배



배재홍 기자와 인연이 깊어지기 시작한 건 한국기자협회 지회 소식지에서 내가 그를 인터뷰하면서부터다. 당시 배 기사는 교과서 출판사의 횡포에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를 연속 보도했다가 수억대 손해배상과 급여가압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재홍이는 좀 달랐다. 보통의 후배 기자들처럼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지도 않았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난 얼굴을 보인 적도 없었다. 글만 보면 영락없는 민완 기자인데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했다. 독특한 느낌의 후배였다.

재홍이는 나와 13살 차이였다. 재홍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내가 입대를 했으니 조카뻘이라 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재홍이는 동생 같지가 않았다. 우선 나보다 키가 컸고, 걸음이 느렸

다. 여하튼 의연한 후배였다.

경인일보 배재홍 기사를 처음 만난 건 2016년 초다. 나는 고양시를 출입하고 있었고 재홍이는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같은 회사라고는 해도 본사에 있는 재홍이를 대면할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본사에 갈 때 짧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래도 느낌은 좋았다.

재홍이가 입사 1~2년차를 거치던 시기, 나는 의욕이 넘쳤다. 고양시에서 제법 특종도 하며 필드를 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한 달 가까이 비판 기사를 씹없이 보도하기도 하는 등 한창 물이 올랐을 때 별안간 무대가 좁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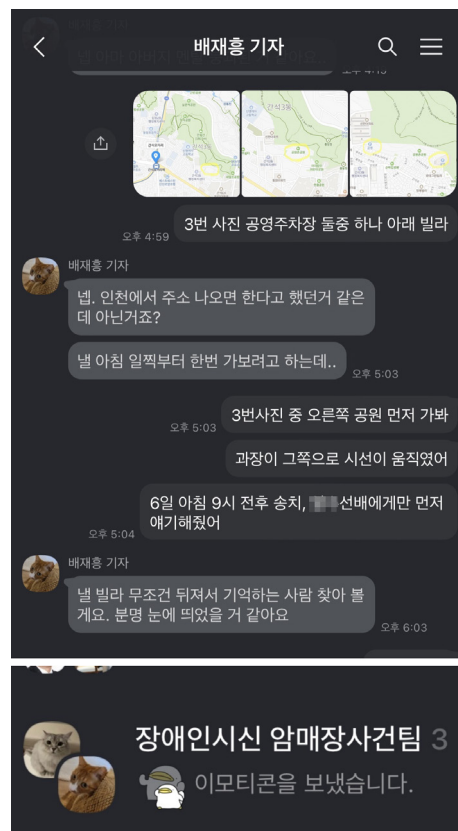
그렇다 해도 나는 자신감이 없었다. 경인일보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유가 컸다. 입사 이전 경력도 변변치 않았다. 자격지심이 마음에 늘 따라다녔다. 후배들이 날 “선배”라고 호칭하는 게 영 어색했다.

뛰고 쓰는 일에 자신이 없던 건 아니었다. 경인일보에서는 2011년 입사자들과 동기로 묶였으나 나는 2007년 인터넷 매체 기자로 시작해 귀한 경험을 쌓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좋은 선배들에게 일을 배워왔다는 확신도 있었다.

우리 집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었다. 경인일보 입사 4개월 만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집이었다. 2017년 초, 나는 수원 본사 근무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 아버지 숨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집을 정리해야 했기에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후배들과 필드를 뛰며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오직 그 이유뿐이었다.

사측 관계자는 내가 올 자리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서운하지는 않았는데 이러다가 주재기자로 외곽만 돌다 퇴직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재홍이 같은 후배들에게 그나마 선배 행세를 하려면 그때가 적기 같았으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김포시로 발령이 났고, 가끔 재홍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폰카메라로 찍어 응원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재홍이와의 인연은 엉뚱한 상황에서 조금 더 깊어졌다. 새 근무지에서 나는 김포맘카페 사건 등 심심찮게 특종을 터뜨리며 인정받고 있었다. 연차가 쌓일수록 사람 관계가 트이고 일은 점점 쉬워졌다. 본사에서 행정 기사 달라면 행정 기사, 사건 기사 달라면 사건 기사 보내주면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어갔다. 늦깎이 결혼도 해서 더 그랬다.



배재홍 기자와 사건 초기 취재방향을 논의하던 대화 캡처본(상단)과 변민철 기자 합류 후 새로 만든 단체톡방. 방을 만들고 보니 두 후배 다 프로필이 고양이 사진이었던 게 공교로웠다.

그 무렵 나는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에 사무국원으로 참여했다. 지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회보 발행이었다. 우리는 동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회보에 B급 감성을 듬뿍 담아냈다. 결혼을 앞둔 후배 커플을 불러내 디스패치식 파파라치 열애설을 내고, 지회장 선거철에는 동료들을 실제 선거기사 주인공처럼 다루기도 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20대 지적장애인이 암매장된 김포지역 한 야산. 경인일보는 사건개요를 최초 보도한 뒤 암매장 현장을 먼저 찾았다.

지회보에서 인터뷰를 주로 담당했던 나는 2021년 5월호를 준비하며 재홍이를 인터뷰하게 됐다. 당시 재홍이는 한 교과서 출판사의 횡포에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를 13회 연속 보도했다가 수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급여가압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감당하기 힘든 송사에 휘말리기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재홍이를 보면서 선배로서 아무 힘이 돼주지 못한다는 무기력감이 있었기에, 진심을 담은 인터뷰기사로 위로를 건넸다. 날 마주칠 때마다 재홍이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진 게 그때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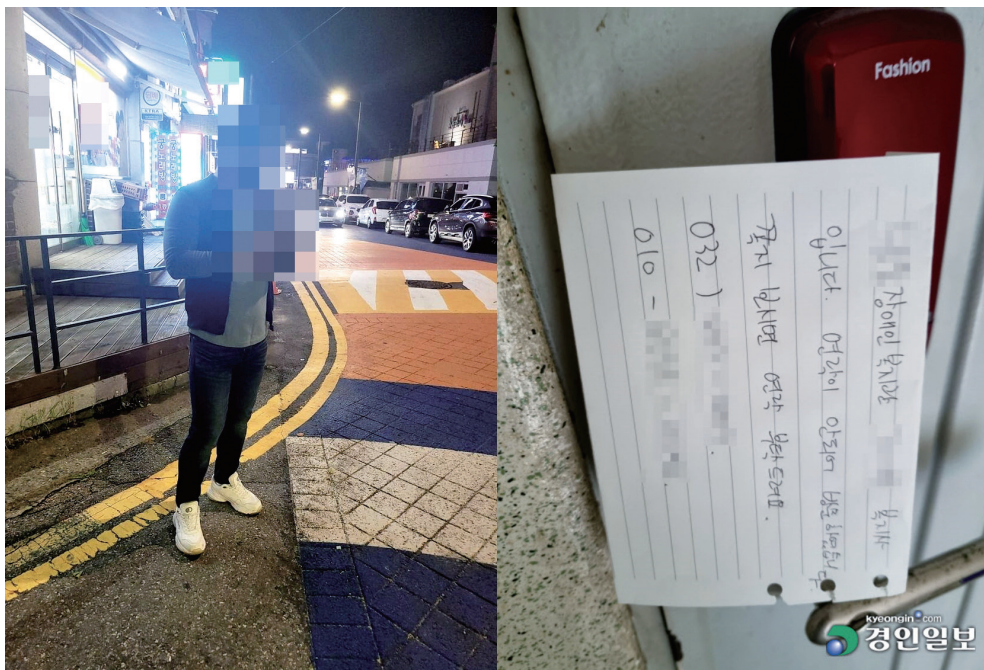
재홍이가 쓰는 기사에는 울림이 있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타 매체 기자들과는 해석하는 게 달랐다. F5 전투기 파

일럿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각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됐다. 문화계에 종사하며 전국에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던 내 젊은 시절과 닮은 구석 하나는 있구나 싶었다.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이 후배와 꼭 한 번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점점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나는 지역기자, 재홍이는 본사기자로 고착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2021년 봄, 사건은 터졌다.

지난 4월20일 학교 간다며 집을 나선 김포의 한 고교생이 실종 2주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시선이 김포경찰서에 집중됐다. 이튿날 연합뉴스의 첫 보도를 받아쓰고는 교육청에 들렀다가 늦은 오후 경찰서로 향했다. 교육청을 취재한 바로는 단순가출이 유력한 상황이었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으려던 참이었다.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과장의 답변도 예상대로였다. 그는 “기자님만 교육청에서 취재를 제대로 하고 오셨네”라면서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어 가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왕 온 김에 친한 경찰들이나 만나고 가야겠다 싶어 경찰서 사무실 이곳



두 후배는 끈기 있는 탐문취재로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갔다. 왼쪽은 배재홍 기자가 피의자들의 공개된 SNS에서 찾아낸 사진으로, 과거 폭행신고 가해자가 암매장사건 주범과 동일인임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오른쪽은 변민철 기자가 범행현장을 다시 방문했다가 발견한 쪽지인데, 변 기자는 이 쪽지에 적힌 연락처를 토대로 암매장사건 피의자 커풀이 아동학대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팩트를 확인했다.

저곳을 돌아왔다. 그중 한 경찰이 “변사사건 알아보러 오셨구나”라며 반겼다. 몸이 움찔하는 걸 감추고 옆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에 있던 경찰은 “암매장사건 취재 왔어?”라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대화를 하는 중 마는 중 하고 다시 형사과장실로 뛰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과장님 저 그것 좀 쓰게 해주세요.”

“아 글썄 가출일 확률이 높아서 기사가 계속 나가면 가족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요, 암매장사건요.”

순간 형사과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형사과장은 “시신이 어제 발견됐는데 용의자 흔적이 전혀 없다”며 “언론에 보도됐다가는 용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다만 그는 부패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 사망자가 인천에 거주하던 20대

장애인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귀띔해줬다. 용의자의 윤곽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재홍이에게 카톡부터 보냈다. 재홍이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입하고 있었기에 공조취재가 필요했다. ‘장애인 암매장’이라는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재홍아 김포에서 장애인 암매장 시신 발견됐어 / 피해자 집은 인천 / 신원은 지문으로 확인했는데 피의자들 증거가 안 나와서 기사 나가면 수사가 틀어지기 때문에 안 쓰고 있어 / 형사과장이 먼저 얘기해주었으니 믿어봐야지’

재홍이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헐... / 이거 크겠네요’

나는 형사과장과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기다려보자 했다. 그리고 첫 보도를 물먹더라도 후속취재는 우리가 쭉쭉 치고 나갈 거라는 메시지로 재홍이를 안심시켰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형사과장을 찾아가 조금씩 나오는 퍼즐을 맞춰갔다. 때로는 과장과 사담만 하다 철수하기도 했고, 주말에도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이

어갔다. 그 사이 용의자 4명도 차례로 체포됐다. 스트레이트 기사 구성요건은 4월 29일 금요일 오후 완성이 됐다.

형사과장은 하나만 더 부탁하자 했다. 토요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텐데 구속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보도하면 좋겠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금요일 저녁에 보도할 경우 주말 내내 형사과 직원들이 언론에 시달릴 게 분명했다. 과장의 말에 동의하고 월요일을 기다리는 주말 이틀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5월2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을 조금 넘겨 경인일보는 ‘김포 야산서 암매장된 장애인 시신 발견...용의자 일당 긴급체포’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를 시작했다. 타 매체에서 사건 개요를 파악하던 시각에는 암매장 현장으로 이동해 주민들을 탐문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모든 상황은 재홍이와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김포 지적장애인 시신 암매장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들과 지난해 가을부터 인천 남동구 작은 빌라에 모여 살았다. 약 4개월간 그는 동거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김포의 야산에 묻혀있던 시신은 나물 캐던 주민이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